



대한 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 소식

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발행인 : 임정기/편집인 : 김동규/서울시 용산구 이촌 1동 302-75/전화 02)798-3807/전송 02)794-3148 www.kamje.or.kr



회원 현황 및 회원 가입 안내

우리 협회회의 단체회원은 2009년 9월 현재 184종 학술지 (의학회, 의협 및 의학회 회원학회 학술지 139, 의과대학 학술지 12, 기타학회 학술지 33)이며, 개인회원이 38명이다.

또한 특별회원은 광문출판사, (주)누리미디어, 아카데미, 엠투커뮤니티, 우리의학사, 메드랑(의학문화사), 중앙문화사, 진기획, 최신의학사, Google Inc., JOY DESIGN, KISTI,

NHN(주), (주)XMLink 총 14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가입을 원하는 단체는 대한의학 학술지편집인협회 홈페이지(kamje.or.kr)의 회원가입 안내를 참고하거나 사무국(Tel: 798-3807(108), Fax: 794-3148)으로 문의하기 바란다.



Synapse 사용자 그룹 워크숍 개최

Synapse의 새로운 기능과 참여 환경이 변화하는 시점에 맞춰 우리 협회에서는 Synapse에 참여하고 있는 전체 학술지 편집인을 대상으로 Synapse 사용자 그룹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5월 19일 저녁 한림대학교국제대학원에서 개최된 이날의 워크숍에는 47명의 편집인이 참석한 가운데 Synapse의 효

용과 기능 그리고 XML 제작경비 인상에 대한 설명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강의 이후에는 다양한 학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조별 토론을 가졌으며, Synapse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의견이 제시되었다.

Synapse 경비 인상은 아래 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Synapse 서비스 경비 인상 내역(2009년 7월부터 시행)>

(편당)

서비스 항목	기존		2009년7월 이후	
	한글	영문	한글	영문
Synapse 서비스*	3만원	5만원	5만원	9만원
Cited by	2만원(선택 사항)		좌동	
PMC 제반 서비스	-	-	-	1만원
DOI deposit 서비스	무료		좌동	
DOI deposit fee(CrossRef) ^b : 일년에 4회 CrossRef invoice에 의거하여 의편협에서 청구	2007년 이후 \$ 1.00 2007년 이전 \$ 0.15		좌동	

*한글 논문은 Abs + Fig & Tbl + Ref 구현, 즉, 글 본문을 제외한 모든 부분 구현 비용이며, 영문 논문은 Full-text 구현 비용.

^b의편협은 CrossRef의 Sponsoring Member로서, Synapse 등재 학술지를 대신하여 DOI Linking을 위한 CrossRef Deposit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Sponsoring Member 연회비는 의편협이 부담하여 지불하고 있으나, Deposit 비용은 학회에서 지불하는 부분임.



제 24차 신규평가회 결과

회원학술지 중 지난 평가에서 평점 2.5 미만의 점수를 받은 학술지와 아직 한 차례도 평가받지 않은 학술지를 대상으로 6월 25일 오후 4시 서울의대 본관 교수회의실에서 제 24차 의과학술지 신규 평가회를 개최하였다. 대상 학술지 중 평가를 신청한 학술지 14종의 학술지가 평가를 받았고 14종 모두 2.5 점 이상을 받아 KoreaMed 등재되었다. 각 학술지별 평점은 오른쪽과 같다.

평가 결과: 대한고관절학회지(2.94), 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지(2.96), 대한수부외과학회지(2.80), 대한치주과학회지(2.61), 대한화상학회지(2.63), 산업간호학회지(2.62), 소아감염(3.27), 정신분석(2.93),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3.27), Anesthesia and Pain Medicine(3.60), Clinics in Orthopedic Surgery(3.70), Electrolytes & Blood Pressure(3.79), Journal of Lung Cancer(3.45), Nutrition Research and Practice(3.99)



제 8차 의학학술지 재평가회

우리 협의회에서는 KoreaMed 등재 학술지를 대상으로 7년 주기로 학술지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11월에는 아래와 같이 2001, 2002년도에 등재된 학술지를 대상으로 제 8차 의학학술지 재평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상학회에는 참여 안내를 공지할 예정이니 해당 학회는 필히 참여하기를 바란다.

- 평가대상 : 2001, 2002년도 KoreaMed 등재학술지
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지, 대한소화관운동학회지,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지, 대한응급의학회지, 대한이식학회지, 대한치과보철학회지, 소아알레르기 및 호흡기학회지, 의과학, 한국역학회지 이상 9종
- 일시 : 2009년 12월 18일(금) 오후 4시
- 장소 : 서울의대 본관 2층 교수회의실



제 3회 의학학술지 편집인 아카데미 개최 예정

우리 협의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제 3회 의학학술지 편집인 아카데미'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학학술지 편집인을 대상으로 하는 아카데미는 지난 2008년 2월에 1회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편집인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아카데미의 강의는 이론뿐만 아니라 편집인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실습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어느때보다 호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일정 및 신청에 관한 안내는 회원 학회 이메일과 의편협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니 관심 있는 편집인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제 3회 의학학술지 편집인 아카데미〉

1. 교육대상 : 의학학술지 편집인
2. 교육목표 :
 - 편집 실무에 도움이 되고,
 - 전문가 심사의 질을 유지하며,
 -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한 이해를 돕고
 - 최근 정보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함
3. 주제 : "Desk to Publication"
4. 일시 : 2010년 2월 4일-5일 (목-금) 09:00~18:00
5. 장소 :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서울 강남 대치동소재)
6. 참가비 : 40만원 ※ 실습장 관계로 40명(限) 접수



임상시험 등록 사업 관련 워크숍 개최

9월 29일 저녁 6시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 강당에서 '임상시험 국가 등록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내 clinical trial을 사전에 질병관리본부의 사이트에 등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임에 따라 회원 학술지 편집인의 이해를 돕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제 2회 Manuscript Editor 교육과정 개최

우리 협의회에서는 우리나라 의학학술지 발전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고 편집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제 2회 의학학술지 Manuscript Editor 교육과정’을 개최하였다.

지난해 2월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Manuscript Editor 교육과정은 2009년 7월 13-14일 이틀간 한림국제대학원대

학교에서 진행되었다. 총 27명의 의편집 단체회원 학술지 원고 편집인이 참석하여 참석자가 주제를 나누어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율학습 및 실습 과정으로 이루어져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의편집 소식지 합본

우리 협의회는 1996년부터 지난 4월까지 발행한 소식지 37개호를 합본하였다. 협의회 창립 소식을 시작으로 지난 13년간 의편집의 크고 작은 사업을 모두 소개하고 있는 소식지는 국

내 의학학술지의 발전과 함께 한 역사적 기록물이다. 이번에 합본 소식지는 의편집 회원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특별기고] 임상시험등록시스템 (운영) -배경과 국내 임상시험등록시스템 구축

질병관리본부 임상연구지원센터 박 현 영

근래 근거중심의료 개념이 확산되면서 의료 행위나 정책결정에 있어 근거를 생산하기 위한 임상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정보수집 및 체계적 문헌고찰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 즉 임상연구는 그 결과가 건강이나 질병관리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참여자들의 위험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대하였던 바와 다른 결과가 도출된 경우에도 연구자는 솔직하게 그 결과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논문에서 새로운 치료에 대해 효과가 있거나, 새로운 사실에 대한 보고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연구결과가 의의가 없거나 새로운 의료기술이 기존의 연구에 비해 효과가 적거나, 대상자 수가 적어 결과가 유의하게 나오지 않은 경우 결과가 출판되지 않은 채 해당연구자들에게만 알려지는 경우가 많다. 의사결정과정에서 체계적 문헌고찰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데 근거 수집과정에서 출판 비틀림이 존재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모든 임상연구 특히 임상시험이 공공적 차원에서 등록관리 된다면 근거의 검색에 있어 비틀림을 방지하고 객관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국제 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를 비롯한 다양한 그룹에서 제안되어 왔다. ICMJE에서는 2005년 7월부터 소속 회원학술지(member journal)에 임상시험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피험자가 연구에 등록되기 전에 공적 기관에서 운영하는 등록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하였으며, 사전 등록되지 않은 임상시험에 대해서는 논문 게재를 거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ICMJE 소속 의학회지 외에 다른 의학회지에서도 임상시험의 사전등록의 의무화가 확산되고 있다. ICMJE가 요구한 등록시스템의 요건으로는 첫째, 별도의 비용 지불 없이 누구나 등록과 검색 검색이 가능하며 둘째, 비영리단체 또는 정부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셋째, 등록 자료에 대해 검증과정이 체계화되어 있고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항목에는 1) 연구고유번호, 2) 중재나 비교대상에 대한 기술, 3) 연구가설, 4) 성과 측정방법 (primary and secondary outcome), 5) 연구대상자 선정기준 6) 연구시작 연구종료, 자료입력완료, 자료 분석 완료예정일 등 주요 일정 7) 연구대상자 수, 8) 연구비지원 기관 기업 또는 단체, 9) 연구책임자에 대한 연락처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있어야 한다. 그 간 ICMJE에서는 www.clinicaltrials.gov, www.ISRCTN.org, www.anzctr.org.au, www.trialregister.nl, www.umin.ac.jp/ctr 등 5개 사이트만 인정하여 왔으며, 2007년 이후 세계보건기구

<표> WHO ICTRP 및 미국ClinicalTrial.gov에서 요구하는 최소항목

WHO ICTRP	ClinicalTrials.gov
1. Primary Register and Trial ID #	1. Unique trial number
2. Date of Registration in Primary Register	2. Trial registration date
3. Secondary ID#s	3. Secondary IDs
4. Source(s) of Monetary or Material Support	4. Funding source(s)
5. Primary Sponsor	5. Primary sponsor
6. Secondary Sponsor(s)	6. Secondary sponsor(s)
7. Contact for Public Queries	7. Responsible contact person
8. Contact for Scientific Queries	8. Research contact person
9. Public Title	9. Title of the study
10. Scientific Title	10. Official scientific title of the study
11. Countries of Recruitment	11. Research ethics review
12. Health Condition(s) or Problem(s) Studied	12. Condition
13. Intervention(s)	13. Intervention(s)
14. Key Inclusion and Exclusion Criteria	14. Key inclusion and exclusion criteria
15. Study Type	15. Study type
16. Date of First Enrollment	16. Anticipated trial start date
17. Target Sample Size	17. Target sample size
18. Recruitment Status	18. Recruitment status
19. Primary Outcome(s)	19. Primary outcome
20. Key Secondary Outcomes	20. Key secondary outcomes

(WHO)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제임상시험등록플랫폼 (International Clinical Trial Registry Platform, ICTRP)에 등록된 임상시험도 인정하고 있다.

WHO에서도 2005년 8월 임상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모든 연구결과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연구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강화하고, 과학적 근거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ICTRP을 구축하였으며 현재 국가별 9개의 primary registry(국가별 1개)와 4개의 partner registry가 연계하여 primary 및 partner registry에 등록된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모든 임상연구를 통합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건강과 관련된 중재(intervention)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로 사람이 참여하는 모든 연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ICMJE에서 요구하는 바와 유사하게 6개 영역(내용/질 및 타당성/접근성/공유성/기술적 역량/거버넌스)의 기준 충족이 되어야 primary registry로 인정하고 있다. WHO에서는 국가당 하나의 primary registry만 인정하고 있는데, 해당국의 보건정책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의 인정을 기본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등록에는 다음과 같은 최소 항목을 요구하고 있다. (표)

최근 보건의료연구에서 근거중심의과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임상시험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지를 검증할 수 있는 등록시스템이 없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국외 학술지에 게재할 목적으로 ClinicalTrials.gov에 등록하였으며, 09년 9월 현재 1350건(phase I : 88, phase II : 325, phase III : 503, phase IV : 273, other: 161)건이 등록되어 있다.

그간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임상연구정보서비스(Clinical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CRIS)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WHO ICTRP와 연계하는 작업을 추진하여 왔다. 09년 3월 보건복지가족부 부처내 합의에 의하여 질병관리본부 등록시스템(<http://ncrc.cdc.go.kr/cris>)을 WHO ICTRP의 primary registry로 지정받았으며, 향후 CRIS에 등록되는

임상시험에 대한 정보는 WHO platform에 등재됨으로써 국제적 학술잡지에도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CRIS는 WHO ICTRP에서 요구하는 최소 필수항목 20개를 포함하여 약 40여개 항목에 대해 등록을 받으며, 임상시험과 관련된 총 11개영역(연구개요, 임상연구윤리심의여부, 연구자, 연구비 지원기관 및 책임기관, 연구현황, 연구요약, 연구설계 및 중재, 대상자선정기준, 결과변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상시험정보의 등록은 WHO ICTRP와 데이터 연계를 위해, 국문과 영문으로 등록하며, web-based 등록시스템으로, 온라인상으로 시간과 공간에 제약없이 등록과 검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등록된 임상시험정보는 국내·외 연구자는 물론 임상시험에 관심 있는 일반인에게도 정보가 공개된다.

국내 임상시험등록관리시스템의 구축은 국내에서의 임상연구 수행에 대한 정보를 국제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근거 평가에 있어 객관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또한 국내 임상연구 수준의 우수함을 홍보함과 동시에 임상시험의 윤리적 수행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등록관리시스템의 성공적 운영과 성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정부 뿐 아니라 민간차원에서 임상시험의 등록을 독려하기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의 임상연구 지원과정에서 임상시험에 대한 등록의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연구 윤리와 연계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2008년 세계의학협회에서 발표한 헬싱키선언 수정안에서 임상시험의 사전등록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향후 연구윤리문제에서 임상시험등록에 대한 실행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의학계에서도 ICMJE에서의 활동과 같이 의학학술지에서 논문 게재를 위해서는 사전등록을 의무화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CRIS가 국외 모든 학술지에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WHO 뿐 아니라 ICMJE 등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끝**